

# “사찰 홍보·기부확산 힘쓸 것”

## 생명나눔실천본부 올 주요사업 계획

어떤 사람은 피가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이식받을 적합한 조직이 없어서 죽어간다. 이런 환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결연을 맺도록 도와주는 일을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임민)가 맡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 주력사업을 3월 4일 발표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주요사업은 크게 ▲장기기증 결연사업 ▲헌혈은행 사업 ▲환자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생명나눔 의식’을 알리고 환우지원 사업에 주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중단 안에서 머무르지 않기 위해 천태종·진각종 지도자들을 이사장으로 영입해 함께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더 넓은 차원에서 활동하는 단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 월 2회 이상 사찰 캠페인 전개

지난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을 진행, 기증자 3100명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인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사업에서도 ‘생명나눔, 함께하는 지정점’ 108곳을 선정, 이들을 통한 생명나눔 홍보를 올해까지 계속 하고 있다.

올해는 이들 사업을 이어나가면서 월 2회 이상 사찰 캠페인 전개, 장기기증 및 조직기증에 대한 세미나 등을 계속해서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뇌사시 장기기증 및 조직기증 1500명, 조혈모세포 등특희망자 3100명 모집의 성과를 올해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정복자 사무총장은 “올해 사찰 캠페인에 역점을 둔 계획인데 각 지역 사찰 주지스님이 생명나눔에 대한 의식을 신도분들에게 설명해주시면 회원 확보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 인터넷·신용카드로 손쉽게 후원

그 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불교계 안 지원금 모금에만 치중해왔다면 올해부터는 폭을 넓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신용카드로 후원하는 기부확산을 꾀한다. 신한카드사와 협력한 ‘아름인(www.armin.co.kr)’은 이미 후원제휴를 시작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공익단체 사이트인 네이버 해피빈(happybean.naver.com) 및 싸이월드 ‘사이좋은 세상(cytogether.cyworld.com)’ 등에도 곧 등록해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연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름인의 경우 ‘아름다운카드’를 쓰면 일정 포인트가 신한카드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로 바로 연결, 적립된다. ‘해피빈’과 ‘사이좋은 사람들’에서는 각 포털사이트가 생명나눔실천본

부에서 소개하는 환우들을 게재할 때마다 기부 포인트를 적립시키면 된다.

### # 희귀병환자 희망경기 대회 개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 9월 ‘가정’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희망경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는 희귀병 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환자지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기대회는 남산길로 내정했으며 환우와 환우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불자 호스피스 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 재교육과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은 광주 지역본부 기념행사로 기획하고 있다.

임민 스님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한다”면서 “생명나눔에 대한 생각이 사회적으로 많이 퍼져있지만 불자들의 관심은 부족한 형편”이라며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했다. (02)734-8050

김강진 기자 kangjin@buddhanews.com



16 불교여성개발원 교정위원 윤순옥 씨

지난 1월, 불교여성개발원이 사형수를 위한 2000일 기도 회향일을 며칠 앞둔 때 사형수로 복역 중인 몇 명의 불자가 감형됐다든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일반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세계 교도소. 높은 담과 철망, 그리고 철저한 통제로 차단된 또 다른 사회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이 세상의 일부고 사람의 온기를 향해 손을 뻗는다. 교도소에서 법을 전하며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불교여성개발원 교정위원 윤순옥(57·사진)씨를 만났다.

# “知·行 갖춘 봉사자 될 것”

“사형수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우락부락하고 생긴 것부터 우리랑 다를 것 같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들도 참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윤씨는 현재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활동 내용은 주로 사형수 면담 및 종교활동 지도다. 즉 사형수로 복역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2시간 여 들어주고 함께 법당에서 불법을 나누는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어머니’가 됩니다. 그들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거나 되겠습니까.”

‘교도소’ ‘사형수’ 등의 단어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까지 그 위화감 속에 몰아넣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윤씨의 생각이다.

물론 윤씨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사형수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나서니 ‘왜 그런데 가려고 하나’며

주변 사람들 “상대방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원 사회복지 학 석사과정 부 터 말했고 윤 씨 자신도 “상대방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원 봉사자의 “역할”을 주재 있을까” 불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불자에게 가장 큰 미덕이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이다. 이는 윤씨의 기본적인 봉사 생각이기도 하다.

윤씨가 봉사를 시작한 것은 꽤 오래 전 일이다. 학자인 남편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다 한국에 돌아온 후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실천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봉사활동이었다. 그 때가 1987년이라 불교계 봉사활동 단체가 없어 그는 친구와 함께 한 교회 단체에서 봉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불교계 봉사활동은 1995년 ‘미소회’라는 봉사단체를 조직하면서부터 계속됐다. 미소회 활동을 통해 그는 탐골공원 무료 급식을 주도했고 현재는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마다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몇 해 전까지는 서울 신림중학교에서 집단상담을, 불교여성개발원과 인연을 맺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나가기 전까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교정활동을 해왔던 윤씨. 이런저런 노후가 쌓이다 보니 2년 전에는 동국대 불교대학 원 사회복지

학 석사과정 부 터 말했고 윤 씨 자신도 “상대방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원 봉사자의 “역할”을 주재

로 논문도 썼다고 한다. 지와 행 모두 갖추기 위해 힘써왔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는 뭔가 ‘배판’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욕만 넘치면 쉽게 지치게 마련이에요. 봉사처에서 정해놓은 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윤씨의 법명은 ‘화희’이다. 그는 봉사와 신행활동을 통해 진정으로 화희를 느끼기 때문에 이 법명이 좋단다. 하지만 아무리 봉사의 길이 좋아도 그는 ‘주부’라는 위치를 절대 놓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봉사를 할수록 집안에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봉사와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어디서든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 스리랑카 파견봉사자 박재현 씨

## “현지에서 적합한 봉사 해야죠”

“해외자원활동에 대해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제가 가진 ‘좋은 세상’에 대한 신념으로 반대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고려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박재현(26)씨는 스리랑카 조계종복지재단으로 파견된다. 군대에 가기 전 대학생정보회에서 인도 등계스와리 마을 활동을 한 것이 그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됐다.

“저는 세상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 스스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 가서 그들을 위해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진 박씨는 학내에서도 ‘사회적 기업 학회’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계속해왔으나 이번 1년을 통해 해외활동가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은 정말 평생을 걸고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최대한 현지인에 동화되어 이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선발 자원활동가 2인

## “해외봉사 주춧돌 쌓을 것”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2월 자원활동가를 선발, 몽골과 스리랑카 지역 조계종 건립 복지사업에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새로 선발된 자원활동가 2인은 3월 3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이들은 3월 중순경 파견 지역으로 떠나 1년 동안 해외활동가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도 계속해서 해외활동가 연수를 받고 있다. 현지에서는 홍보·마케팅은 물론 현지 사정에 맞는 기부상품 개발, 프로그램 진행 등의 중책을 맡게 된다. 그들은 입을 모아 “나아가 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주춧돌이 된다는 각오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 몽골 파견봉사자 구자정 씨

##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싶어”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 사람들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완공된 몽골 조계종 사회복지센터에 파견되는 구자정(27)씨는 한신대 국제관계학과를 얼마전에 졸업했다. 그러나 대학시절부터 수원지역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는 물론 NGO단체 참여 경험이 많아 진작부터 해외활동 자격자로 꼽혔다.

“이번 기회로 해외활동에 대해 생각해왔던 것들을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제가 현지인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도 절실히 느꼈지요.”

해외활동가의 길을 걸기로 마음 먹었다는 구씨는 1년의 시간 동안 스스로 해외활동가가 될 자질이 있는지 시험하는 시간으로 꾸려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지에 도착하면 우선 그 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생각입니다. 문화를 배운다는 자세로 활발하게 일하면서도 요란하지 않은 활동가가 되겠습니다.”

# 동방불교대학 신·편입생 모집 안내

### 모집학과 및 편제

학과	모집인원	편제	비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승가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법해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불교미술학과	00명	3년제	정규반

### 전형일정

구분	날짜	장소
원서교부·접수 및 면접	2008. 3. 4(화) ~ 2008. 3. 31(월) 17:00	· 본교 교학처 · 인터넷 교부·접수 (www.dongbang.org)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졸업특전

1. 태고종단의 합동독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가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승려증을 발급받는다.
2. 모든 학과 졸업생에게 정식 태고종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3. 법해학과 졸업생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 상주권공 수료증을 수여한다.
4. 불교미술학과는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시험(국가고시) 등에 대비한 특강을 실시한다.
5. 성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 제출서류 및 지원지역·전형료 등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학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2008-1학기 특별강좌 개설

본교는 2008학년도부터 건학이념과 사회적 흐름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재학생 및 동문과 기성종도 및 일반제기불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특별강좌를 개설합니다.

- ◆ 수강신청 : 2008. 3. 5(수) ~ 2008. 4. 4(금)
- ◆ 개설기간 : 2008. 4. 7(월) ~ 2008. 7. 7(월)

강좌명	강사	강의일시	수강료
삼담학	김주선(범일스님) (佛 중영대 교수)	매주 금(3개월) 10:30~12:10	20만원
유마경 강해	정성준 (동국대 강사)	매주 월(3개월) 10:30~12:10	20만원
요가와 호흡명상	심준보 (동국대 강사)	매주 화(3개월) 10:30~12:10	25만원
상징에서의 유훈심리와 치료	이범수 (동국대 강사)	매주 목(3개월) 10:30~12:10	25만원
문화재수리 특강	건축사 심대성(대한건축연구원) 세계학 광동해(동국대 겸임교수) 도학 김희경(연교 불미과교수)	매주 월(3개월) 10:00~12:00	25만원

동방불교대학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TEL: (02)745-2030-2 FAX: (02)744-3461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불교 태고종 중앙승가 전문강원 제 2기 강원생 모집

한국불교의 수행근본 도량인 금강산 유점사의 강맥을 잇듯이 계승 전수하는 태고종 중앙승가 전문강원에서 제 2기 강원생을 모집합니다.

### 1. 강원 수학생원 및 교과 과정

1. 수학생원 : 2년 4학기(1학기 : 능엄경 / 2학기 : 금강경 / 3학기 : 기신론 / 4학기 : 원각경)

### 2. 입학원서 등록 마감

2008년 3월 14일(음 2. 7) 금요일

※ 입학자격 및 구비서류 등의 자세한 문의사항은 태고종 총무원 교무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2)739-3450(내선 113번) / 교무과장 법전

## 한국불교 태고종 제 32기 합동독도 수계산림 대상 행자 모집

본 중단에서는 승려법 제 3조 및 제 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 32기 합동독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행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1. 등록 마감

2008년 3월 13일 목요일

### 2. 접수처

총무원 교무부, 각 시·도교구 총무원

※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문의사항은 태고종 총무원 교무부와 각 시·도교구 총무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2)739-3450(내선 113번) / 교무과장 법전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교무부원장 보경